



북미

한글학교 역사문화 수업자료

동물





활동지 1

세 호랑이 이야기



다음은 신라 시대의 세 호랑이 이야기에요.

이야기를 읽고 자유롭게 다음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역할극을 해 보세요.

세 호랑이 이야기

등장인물: 김현, 호랑이 처녀, 집주인, 세 호랑이

신라시대에는 남녀가 모여 복을 빌기 위해 절에서 탑을 도는 복회라는 문화가 있었어요. 이곳에서 김현이라는 남자와 한 처녀가 만나 첫눈에 반해 결혼했어요.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처녀의 집주인이 처녀에게 말했어요.

집주인: 너희 오빠들인 세 호랑이가 김현을 해칠지도 모르니 김현을 집에 잘 숨겨두어라.

얼마 지나지 않아 호랑이 세 마리가 나타나 사람 냄새를 맡으며 어흥거리며 김현을 찾고 있었어요.

세 호랑이: 어흥. 우리 동생 집 근처에서 사람 냄새가 나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거야?

이때, 세 호랑이가 사람의 생명을 자꾸 해치는 것을 본 하늘은 세 호랑이들에게 경고를 했어요.

하늘의 산: 내가 너희 세 호랑이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다.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너희 중 한 마리를 골라 벌을 줄 것이야!

세 호랑이: 어떡하지? 큰일났네! 난 죽기 싫다고~

처녀: 제가 오빠들을 대신해 하늘의 벌을 받을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

오빠들 대신 하늘의 벌을 받기로 한 처녀는 김현에게 작별인사를 하러 갔어요.

처녀: 저는 호랑이고 당신은 사람이지만 우린 이미 부부의 인연을 맺었어요. 하지만 사람들을 괴롭힌 오빠들 대신 제가 죽으려고 해요. 제 생각엔 다른 사람의 손에 죽는 것보다 당신의 손에 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내일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괴롭히면 임금은 사람을 뽑아 나를 잡으라고 할 거예요. 잡는 사람에게 큰 상을 줄 거고요. 그때 당신이 겁내지 말고 나를 잡아주세요.



활동지 2

호랑이 속담

아래 만화를 보고 마지막 장면에 들어갈 적절한 속담을 <보기>에서 골라 적어보세요.

보기

-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
-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 노릇 한다
-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
-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
-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

글쎄.. 아빠한테
전화 한 번 해볼까?



아빠가 좋아하는
된장찌개네요!
아빠는 언제 오신대요?

아빠왔다!~





활동지 2

호랑이 속담

아래 만화를 보고 마지막 장면에 들어갈 적절한 속담을 <보기>에서 골라 적어보세요.

보기

-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
-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 노릇 한다
-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
-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
-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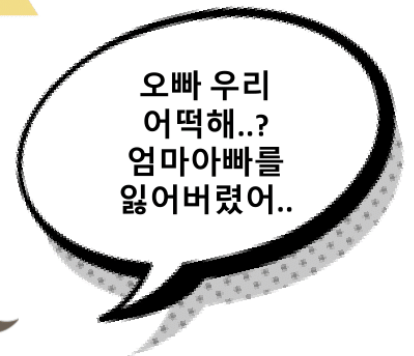
활동지 2

호랑이 속담

 아래 만화를 보고 마지막 장면에 들어갈 적절한 속담을 <보기>에서 골라 적어보세요.

보기

-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
-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 노릇 한다
-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
-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
-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





활동지 2

세계의 속담

 한국의 속담과 비슷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의 속담을 비교해 보세요.

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의 **호랑이가 나오는 속담**은 무엇이 있나요?

호랑이 말고도 **동물이 나오는 속담**이 있나요?
